

# 수도권 콘텐츠 기획공연화... 문화 향유 확대한다

광주 북구문화센터, 4~12월 전통음악·연극 등 8회 선택  
지역유통 선정 국비 1억4000만원 확보... 거점 공연장 기대



댄스컴퍼니 Sun&Friends의 '3×3 춤 커넥션' 무대 모습.

광주 북구문화센터가 올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콘텐츠를 기획공연 형태로 잇달아 선보여 지역 문화 향유의 폭을 넓힌다.

이를 바탕으로 예술의 일상화, 문턱 낮은 문화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북구문화센터)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억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북구문화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콘텐츠를 지역으로 유통하는 거점 공연장 역할을 맡게 됐다.

센터는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으로 선보이는 총 4회 공연을 포함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기획공연 총 8회를 마련한다. 전통음악은 물론이고, 현대무용과 연극, 배리어프리를 콘셉트로 내세운 무대 등 다양한 공연예술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관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

첫 무대는 한음원밴드와 소리꾼 유태평양이 준비한다. 오는 4월 3일 '그루브 in 판소리'라는 타이틀로 판소리에 월드뮤직 감성을 더해 전통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희안의 '고희안 재즈: Spring Holiday'.



극단 결판의 '엔 ANNE 배리어프리'.

이어 5월 15일에는 재즈 피아니스트 고희안이 '고희안 재즈: Spring Holiday'로 봄의 정취를 전하고, 여름 시즌인 6월 27일에는 광주 북구문화센터 상주단체인 댄스컴퍼니 Sun&Friends가 레퍼토리 현대무용전 '3×3 춤 커넥션'을 무대에 올린다.

8월 8일에는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광주시립극단의 '오스카와 장미할머니', 8월 28~29일에는 유쾌한 서사가 돋보이는 극단 지우의 'NEW 망원동 브라더스'가 무대를 채운다.

10월 30~31일에는 장애인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한 뮤지컬 '엔 ANNA: 배리어프리'를 통해 문화예술의 포용성 판소리를 타이틀로 판소리에 월드뮤직 감성을 더해 전통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무대인 12월 4일에는 최정수 타이니오케스트라의 'Orchestral Jazz'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북구문화센터는 공연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문화 공공성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마음 토닥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 문화배려계층을 위한 객석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고 스마트 티켓·전자검표 시스템을 도입해 관람 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공연장과 갤러리 대관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문화 콘텐츠 아트인 홀 역시 운영해 문화 접근성을 넓힐 계획이다.

이유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

대리는 "이번 공모 선정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공연 뿐 아니라 교육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구문화센터가 지역 문화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구문화센터는 북구의 문화거점기관으로, 문화회관과 공공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다 넓히기 위해 품격 있는 다양한 공연 및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공연일정 최소 3주 전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과 프로그램은 북구문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황금색톤의 삶 응축...사물의 본성·원형 자각

정순아 개인전 16일까지 서울 JBOX갤러리  
'은총' 주제 신작 20점... '담백한 느낌' 선사



관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펼쳐온 전남 진도 출신 정순아 작가가 서울에서 제17회 개인전을 열고 있다. 전시는 지난 6일 개막, 오는 16일까지 강남구 신사동 소재 JBOX갤러리에서 '은총(Grace)'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전체 황금색톤이 주류로 50호와 40호 등 신작 20점이다.

타이틀인 '은총(Grace)'은 땅이 신의 은총이라는 작가의 시각에서 기인한다. 은총은 우리가 딛고 서는 자리에서 씨를 묻으면 다시 생명을 맡아 올리는 힘의 맥락과 동일하다.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품고, 결국은 다시 내어주는 존재로부터 발현되는 그 무엇이 은총의 구체적 상인 셈이다. 그리고 은총 위에 살고있는데 흙을 만지고, 땅을 긁어 그 숨결을 화면에 옮

긴다는 설명이다. 기존 풍요와 평원의 미학을 구현해낸 데 이어 분주한 일상 속 감정의 변화들을 다채로운 색깔로 표현하는데 치중해온 정 작가는 2024년 전남대병원갤러리에서 열린 전시에서 부모님 산소를 가다가 만난 벼들의 움직임이 깊어지게 조망하면서 천착한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작가의 화면은 다양한 색들과 선, 재질 등을 통해 생동감있는 땅의 생명력과 리듬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풍요의 세상을 생각하며 존재하는 것들의 조화를 피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작가는 전시 서문에서 삶의 안식처이자 극복해야 하는 공간이고 예전의 대상인 자연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연 속

풍경이아말로 멀고도 가깝게 존재하며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안겨준다는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의 가치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삶 속에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알고, 무지를 일깨우는 관념의 통찰에 참여한다고 전제된 뒤 가시적인 사물의 세계가 아닌 사물의 본성과 원형에 대해 인식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망한다.

전남대병원갤러리 전시에서도 엿보였듯 작가에게 황금색은 수확을 상징한다. 또 스스로 증명한 시간의 결과로 땅의 언어이자 신호로 읽힌다. 작가는 스스로 "황금벼를 그려온 시간이 어느새 수년이 됐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가 생각하는 황금색은 다른 작가들의 색깔과는 다른 의미를 띠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작가는 황금벼의 숫자로 환산되는 가치보다는 오래 전부터 땅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굉장히 높게 자각하고 있다.



'골든 메모리즈' (Golden Memories)

작가는 "생명의 숨결, 시간의 기억, 누군가는 흙을 밟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그 위에 집을 세우고 그리고 길을 낸다. 그 모든 발자국이 모여 땅의 악보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땅의 심포니를 펼쳐본다. 땅에서 시작해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황금의 감각, 그 감각이 그림 속 에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며 창작이라는

사고 속에서 그저 그 느낌을 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면서 "땅은 말이 없지만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나의 작업은 은총에 대한 응답"이라고 밝혔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가 끝난 이후 오는 6월 독일가치갤러리 초대로 광주 작가 3명과 독일에서 전시를 열 계획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오랜 시간의 흐름...시·공간 문양에 담다

김지훈 개인전 29일까지 금방미술관

사회문화마를 금방미술관은 기획 초대 김지훈 개인전을 마련, 10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제1전시실에서 갖는다. '흔적의 층' (Layers of Traces)이라는 주제로 열릴 이번 전시는 자연 속에서 축적된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경험된 공간을 미적 조형 언어로 해석하며, 시간과 존재에 대한 사유를 화면 위에 풀어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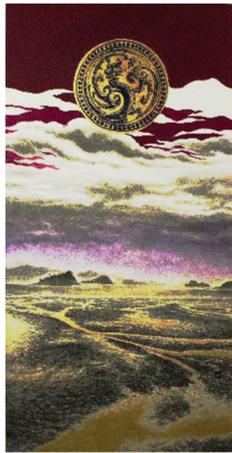
특히 그의 작품 바탕에는 오랜 시간의 흐름을 품어온 서남해안의 개펄과 물결이 펼쳐지고, 여기에 백제의 봉황문전과 반룡문전에 새겨진 문양이 더해진다.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장면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형상은 담묵에서 시작해 중묵과 농묵으로 깊어지는 붓질을 통해 형성되며, 수묵

의 층을 쌓아가는 과정은 자연이 오랜 시간에 걸쳐 흔적을 만들어가는 방식과 닮아 있다.

여기다 금박과 은박을 실크스킨 방식으로 더하고, 전통 안료와 아크릴을 병치해 사용,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가 중첩된 또 하나의 '흔적의 층'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고대의 기억과 자연의 시간이 교차하며 새로운 풍경을 생성하는 장이 된다.

김지훈 작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거쳐 전남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 '한국화 길을 묻다'전과 '여명의 시간'전 등에 출품했다. 2024년과 2026년 남농학대학교 기획운영자로 활동했고, 광주국제아트페어 대외협력위원장, 2021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광주특별전(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및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3관(목포대중



'흔적의 층-紅天金灘'

음악의 전당) 큐레이터 등을 역임했다. 광주미술협회 등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현재 전남대와 광주교대, 국립목포대에 출강하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 작가에게 직접 듣는 '시가렛 걸' 원작의 숨결

亞문학페스티벌 사전 프로, 14일 ACC 문화정보원

넷플릭스 글로벌 화제작 '시가렛 걸' (Cigarette Girl)의 원작 소설을 쓴 인도네시아 작가 라티 쿠말라(사진)가 광주를 찾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4일 오후 3시 문화정보원 극장3에서 2026 아시아문학페스티벌 사전 프로그램인 '라티 쿠말라의 시가렛 걸 북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북콘서트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시가렛 걸'의 원작 소설과 그 배경이 된 인도네시아의 현 대사를 조명하는 자리다. 작가 라티 쿠말라가 직접 방한해 작품의 집필 과정과 역사적 맥락, 소설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나누 예정이다.

소설 '시가렛 걸' (원제 'Gadis Kretek')은 인도네시아 정향 담배 산업을 배경

으로 한 가족사와 사랑, 시대의 변화를 다룬 작품이다. 1960년대 인도네시아 사회 속에서 금기에 도전한 천재 조향사 정아의 삶을 중심으로 세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을 풀어낸다.

이 작품은 2012년 발표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어·독일어·아랍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로 번역돼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국내에는 지난 달 한예스24문화재단 동남아시아문학총서 일곱번째권으로 출간됐다.

특히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시가렛 걸'로 제작돼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고,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데 이어 서울국제드라마어워즈에서 최우수 미니시리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드라마가 담지 못한 원작의 서사와 인도네시아 역사, 여성



서사의 의미 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북콘서가 진행될 전망이다. 작가와 독자가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객석은 200여석 규모로 온라인 신청과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ACC 누리집에서 구글폼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등록은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가능하다.

한편, ACC는 아시아 문화와 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아시아문학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작가와 독자 간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